

“전북경제 활성화 끊임없이 도전”

김관영 도지사, ‘민선8기 2년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 청년·기업인 등 도민 200여명과 소통 나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활성화 등 도정 역점 정책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하며 소통의 대화를 나눴다.

전북자치도는 26일 전주 KBS 공개홀에서 민선 8기 2주년 ‘도민과의 대화’에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도민과의 대화’는 KBS, MBC, JTV 방송 3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처음 개최된 뒤 올해로 2번째이며, 박해진 MBC 전 아나운서의 사회로 방송사에서 공개 모집한 청년, 기업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도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경제, 산업, 특별자치도, 새만금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답변하고 도민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며, 지난 2년간의 도정 운영을 돌아보는 등 진솔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도민 여러분을 모시고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전북 경제 살리기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 왔다. 잘되고 있는 분야는



26일 전주KBS 공개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도민과의 대화에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더 열심히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를 내겠다”며, “도민들께서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직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에도 굴

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며, “도민들의 응징된 열원과 응원이 2차 전기 특화단지 유치를 이뤄낸 것처럼 앞으로도 도정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한편, ‘도민과의 대화’는 △7월 2일

오후 7시 20분 KBS △7월 3일 오후 5시 55분 MBC △7월 3일 오후 6시 40분 JTV에서 방송될 예정이며, △7월 6일 오전 11시 JTV로 재방송이 송출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 발전 제도개선 주력 ‘결실’

민주 윤준병 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수상
“尹정부 실정 견제, 민생·지역발전 위한 정치 실현 최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해수위, 정읍·고창)이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21대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정제도 도입법’을 비롯해 ‘재해 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면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회를 전하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공익 실현에 대한 헌신과 함께 지역 언론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민생과 지역발전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해를 맞는 정치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에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정책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재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1호 법안으로써 ‘농산물가격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전반기 남원시의회 의정 마무리

남원시의회는 26일 제2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남원시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11면)

의회는 전반기 2년간 136건의 조례 제·개정건을 의원 발의, 82회의 5분 자유발언, 7회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 남원시의 정책을 점검했으며, 26일 3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언어지식형 안전관리 △농업작업 안전장치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인영 지원금 지급 등의 조례안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안건을 포함하여 2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경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 그동안 의회 운영에 앞장서고 있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께 감사사를 드린다며, 남은 2년 동안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의 행복과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임성근 구명 로비 정황...尹 답해야”

민주·조국혁신당 “진상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6일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배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정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통화 기록들은 진실을 감춰야만 했던 자들의 긴박했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의압의 마지막 퍼즐이 결국 김건희 여사였는가”고 주장했다.

그는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은 왜곡되었는지를 풀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드러났다”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임성근 전 수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의 친분 관계가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이모씨를 모른다고 밝혔는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과 임 전 사단장이 골포모임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도대체 누구의 부탁을 받아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있었는지 이제는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왜 그토록 임 전 사단장을 살려줬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혹시 임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한 비선의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세간의 의혹 제기”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채해병 사망 사건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상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오직 특검, 특검과 함께 추진 되는 ‘국회 국정조사’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완주군 소재 기업 대상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권요안 도의원, “현장 목소리 반영해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5일 완주군청에서 완주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권요안 도의원, 김용현 완주산단협의회장 및 완주군 소재 80개 기업 및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을 비롯한 지원사업 주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초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완주 소재 기업대상 설명회를 전주에서 진행하면서 완주 소재 기업들의 참석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이런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권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된 설명회는 몇 차례 기획 회의를 거쳐 완주군 소재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설명회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처음 참가한 기업 관계자는 “기간 설명회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회사 주요일정과 맞물리며 참석을 못 했는데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회사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원사업 응모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부검토를 진행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설명회를 기획한 권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완주군 소재 기업 임직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라 관련 내용과 기업이 원하는 설명회 프로그램들을 청취해서 설명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의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주지점이 7월에 개소된다. 이제 완주군 기업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기업성장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대책 마련, 법 물관리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 등의 법제화를 집행부와 섬진강범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조정희 의원도 지방교부세 및 조경교부금 감축으로 인한 대비책 마련과 세출예산의 당해연도 집행 준수, 타당성 있는 연구용역 수행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신장이 의장은 정례회를 마치며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순창=이양형 기자

민주 전국당원회준비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당원들의 뜻 오롯이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전당대회 조성”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회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당원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전준위 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위성곤·이수진 의원, 총괄본부장에 황명선 의원을 임명했다.

전준위는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로 오는 8월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틀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4선 국회의원이 이춘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국회에서도 굵직한 직책을 수행해왔다.

특히, 어느 한 계파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과 합리성을 가진 인사로 평가받는다.

이춘석 의원은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전당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가정법원’ 신설 이뤄지나

민주 이성운 의원, 지역구 선거공약 관련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지난 25일 지역구 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이다.

이훈·상속·재산관리 등 가정사건의 분쟁 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에는 2005년부터 가사·소년 전문법관(2022년 기준 41명)이 배치되어 있다.

전문법관은 일반적인 순환 근무 패턴과는 달리 한 곳에서 4~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이성운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전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의회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 의결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는 지난 25일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장수군의회는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기간동안 예결위원들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날카로운 지적이 이루어 졌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장수=고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처리 안건은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소관 △고창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차남준) 소관 △고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선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민규) 소관 △고창군 농업작업안전장비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발의: 오세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29건이다.

박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해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적법성 준수등을 확인하며 대안을 통한 재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임정호 의장은 안건 의결 후 폐회사에서 “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생산적이고 군민 중심의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제9대 후반기 의회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제1회 추경 5391억원 확정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순창군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91억원을 최종 확정된 뒤 1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군의회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하룡)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5,391억7,636만원의 순창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5.5%, 282억9,053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4,921억1,514만원에

서 5.4%, 269억458만원이 늘어난 5,190억1,9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 187억7,071만원에서 7.3%, 13억8,595만원 늘어난 201억5,666만원이다.

이번 정례회는 추경안을 비롯해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1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범 방류관리 실패로 인한 피해를 다시 겪지 않도록 주민 대피 계획과 하류지역 침수